life's ingredients
samyang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시는군요?
가족의 안전을 지켜드리는 기술속에도
보이진 않지만 삼양이 있습니다.

檀紀 4339년 (西紀 2006) 6月 30日 發刊. 印刷_大東文化 第 7 號

筆巖書院 山仰會報

필암서원 청절당 : 필암서원 대강당으로 河西 先生의 淸節을 기리는 건물이다.

◇目次◇

1. … 河西「天命圖」에 나타난 天人觀
6. … 河西先生의 詩
10. … 韓愈의 師說
11. … 河西와 訥齋, 六峯, 思庵
15. … 祝 辭
16. … 山仰會 및 筆巖書院 消息
21. … 2006년도 사업계획
22. … 山仰會 任員名單

(515-812) 全南 長城郡 黃龍面 筆巖里 377 電話 : 061-394-0833
發行人 : 山仰會長 朴鍾達 編輯主幹 : 金梓洙

筆巖書院 山仰會

河西「天命圖」에 나타난 天人觀

金 王 淵
한남대 철학과 교수

하서의 「천명도」가 실린 天命圖解 綾城本은 1578년에 출판된 초간본으로 그 속에는 '秋巒鄭之雲先生天命圖', '天命圖說', '退溪李先生改訂' 등이 함께 실려 있으므로, 먼저 세 그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본 후, 여기에서부터 당시 조선 중기 성리학의 배경 속에서의 하서의 천인관의 의미를 추론해 보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훗날 퇴계와 고봉의 사단칠정론 논쟁의 단초로서 간주되고 있으며 하서의 「천명도」 원도를 낳게 한 직접적인 동기를 유발했던 것으로 보이는 추만의 「천명도」 원도에서는 天形과 地形의 일차적인 구분 아래 다시 지형 속에서 人形과 동물 · 식물로 세분하여 논하고 있는데, 이와 크게 다르지 않게 하서의 「천명도」에서도 天과 地의 구분 아래 다시 人과 物 그리고 동물 · 식물을 세분하여 다뤄지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권근의 「입학도설」과 비교할 때 추만의「천명도」에는 먼저 天形에 '子下午上'의 十二支를 추가하고 人形의 心性에서 권근과는 달리 理氣 분속이 존재하지 않으며, 四端이 五常 개념으로 다뤄지고 있는 등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서는 추만의 「천명도」에서 표기된 오상 위치를 '中'으로 대치시켜 놓고 仁義禮智의 理를 渾然難分으로 명시하여 밝혀놓고 있다는 점인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그것의 철학적 의미를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그리고 권근 도설에서 나타났던 음양오행의 구별을 消長盛衰의 변화로 이해하거나 十二支를 추가하여 子下午上으로 표시한 것은 時空 개념의 보다 구체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는 한편, 천형의 원밖에는 원형이정과 誠으로 그 영원성을 대표하고, 內環에는 水火木金土로 발전된 변화 과정을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天 · 地 · 人으로 三分하여 천명의 체계를 도식화한 후, 天을 十二支로써 방위와 시간을 표시하고 음양오행으로써 생성소멸을 다루고 원형이정의 4개념으로 생장소멸의 과정을 범주화시키고 있는 점은 추만과 하서 · 퇴계의 「천명도」에서 거의 일관된 표출임을 볼 수 있으며, 주렴계의 태극도설에서 원 상단에 명기된 '無極而太極'을 발견할 수 없는 점도 공통된 특징이다. 그렇다면 이제 하서의「천명도」에 나타난 그의 天 또는 天命觀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서의 천명관은 그의 사유의 성숙과정을 통해 주돈이와 장재, 주희를 비롯한 宋明 성리학 이론을 수용 계승했으므로 기본적으로는 천이나 천명을 理로써 이해하는 성리학적 해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천명의 체계를 천의 도형과, 인간 및 동식물을 포함한 지형으로 도식화하고 지형 외부의 원 밖에 음양도를 그린 것은 다른 조선 성리학자들과 공유하는 해석이다.

그런데 퇴계가 「天命圖說後敍」에서 이미 宋明의 「태극도」와 비교하여 「천명도」의 특징을 理氣의 化生으로 설명한 것처럼 하서는 천인 관계를 퇴계보다 오히려 더욱 理氣化生의 시각으로 파악했다고 보여지는데, 그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기로 한다. 하서는 天命의 命을 「천명도」의 陽이 始長하는 子方인 水 · 貞의 지점이 음양권의 일부까지 점유한 방식으로 천명도의 맨 하반부에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퇴계의 천명도에서는 천명이 인간과 직접 연결되지 않은 채 도의 상반부에 위치해 있는 사실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하서의 천명도에서는 天命의 理를 氣에 의한 생성 변화에까지 적용시키면서 천명이 인간과 삶에 구체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임을 부각시키면서 윤리 도덕 기준의 근거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서, 그의 「천명도」에는 음양의 생성 소멸도 내부에 원형이정의 생성이 명시되었는데,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원형이정은 일찍이 『易經』『乾卦』에서 자연의 생명정신에 입각하여 생장 소멸의 과정을 설명한 천지만물의 생성 원리이다. 元은 생명의 시원적 정신으로, 건괘와 곤괘에서 밝히듯이 만물의 생성의 근원을 뜻하며, 亨은 생명 형통의 정신으로 생성의 시작 이후 성장을 통해 형체를 형성함을 뜻한다. 그리고 성장 이후 생명의 성숙과 결실을 뜻하는 것이 利이며, 마지막으로 결실 단계 이후 생명이 또 다른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예비하며 이른바 끊임없는 생명 완성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貞이다. 하서 역시 그의 문집 속에서 "動靜이 하나의 이치로 관통해 있으니 스스로 그러한 까닭에 貞하면 다시 元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역경』의 천지만물의 생성원리인 원형이정 개념으로써 하서의 「천명도」에 나타난 천명이 또한 天道의 理임이 명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하서는 원형이정의 각 문자마다 誠을 병치시키면서 천도의 참된 실현을 함축적으로 나타낸다.

이상과 같이 하서의 천명관은 『中庸』 首章의 "天命之謂性"에 근거하며, 天命의 理를 天道의 誠과 易의 생성원리인 원형이정뿐만 아니라 性으로서의 인간은 물론 금수와 초목까지 연결시킴으로써 퇴계의 천명관보다 더 나아가 天道와 仁道의 유기적인 관계를 형이상학적으로 체계화시켰다고 볼 수 있으나,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 그의 인간관에 대한 접근으로 이행하기로 한다.

河西 「天命圖」에서의 人間觀

하서의 「천명도」는 추만과 마찬가지로 권근의 「天人合一圖」와 달리, 인간을 '頭圓足方'으로 도시하고 천명도의 중심에 위치시키고 있는데. 이는 인간을 天의 圓形과 地의 方形이라는 두 가지의 형상을 갖춘 것으로 보고 만물 존재 중 인간의 영장성을 밝히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天命으로서의 性과 氣의 차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먼저 천명으로서의 성의 관점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성리학에서 인간의 본성으로 간주되고 있는 五性으로서 인간을 다른 금수나 초목의 존재와 구별할 수 있게 하는 존재 원리로 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하서는 초목을 "완전히 막혀서 통하지 않는" [全塞不通] 존재로, 금수는 "어떤 것은 하나의 통로를 갖는" [或通一路] 존재로 규정하는 한편, 인간을 "五性이 사방으로 통하는" 존재로 규정하면서 인간이 천지와 더불어 위대하게 될 수 있는 존재론적 근거로 삼고 있다.

만물의 차별성의 원리인 기의 관점에서 보면, 하서는 氣質의 正通偏塞의 차이에 따라 인간과

금수 초목의 존재를 구별하고 있다. 즉 인간은 "바르고 통하는" [正通] 기질을 갖추고 태어나는 데 비해, 금수는 "기울어졌으나 바른" 기질을 갖추고 있는 반면, 초목은 "완전히 기울어지고 막힌" [偏塞] 기질을 갖추고 있다고 구별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서는 인간을 '平正直立'의 형태로, 금수의 존재는 '橫生尾上'의 형태, 그리고 초목은 '逆生向天'의 형태로 규정한다.

인간의 영장성을 주장하는 인본사상 이념은 유학사에서 일찍이 『書經』을 통해서 밝혀진 것처럼 원시유학 이후 道家나 佛家 등의 여타 사상과 구별되는 유학의 근본 이념인데, 여기서 性으로서의 理와 氣의 성리학적 체계에 입각한 존재론적 설명을 통해 인간의 영장성의 철학적인 정당성을 모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특히 주목할 점은 하서의 천명도에 나타난 理氣에 입각한 이러한 존재론적 설명을 도식을 통해 체계화시키고 있는 점은 권근의 천명관이나 중국 주돈이의 태극도 등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성리학의 일반적인 인간관을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선 성리학의 심화된 인본주의 이념을 철학적으로 발전시켜 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조선 중기 성리학의 인본주의적 이념을 공유하고 있는 하서의 천인관은 그의 심성론에 대한 해석을 통해 좀더 구체적인 논의를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하서의 天命圖가 이황이나 정지운의 천명도와 비교해 볼 때 가장 독창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점은 정지운의 천명도에서의 五常의 위치를 中으로 대치시키고 나아가 인의예지의 理가 혼연난분이라고 명기하고 있는 점이며, 뿐만 아니라 情의 선악의 차이를 和와 過不及으로 명기하고 있는 하서의 해석이다.

성리학에서는 일반적으로 天命이 理로써 인간이 품수하고 있는 天命의 性을 純善한 性으로 간주하여 본연지성으로 구별하면서, 인간이 현실의 경험적인 행위를 통해 어떻게 선에 부합되지 않는 악한 행위를 낳게 되는지를 심성론의 분석을 통해 밝힘으로써 이에 근거하여 도덕적 수양론을 전개시키는 데 주목한다.

그렇다면 하서는 그의 천명도를 통해 어떻게 인간의 심성의 구조를 고려하고 있는 것일까? 하서는 정지운이나 퇴계와는 달리 인간 도형의 중심에 心圈을 위치시키고 그 안에 음양의 情圈을 배정하면서 이 情圈속에 희로애락의 각 문자 옆에 파열된 '欲'이라는 글자를 병치시켜 놓고 있다. 그런데 위에 언급한 것처럼 하서가 性圈으로서 中을 설정하여 中으로서의 性이 天命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은 하서의 독창적인 심성관을 엿볼 수 있게 하는 점인데, 여기서 하서가 性을 中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은 바로 그가 天人합일의 근거로서 찾고 있는 『中庸』의 이념을 그의 심성론적 해석에 적용시키려는 하서의 의도라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천명에 대한 하서의 해석을 살펴보면서, 天道로서의 誠을 원형이정의 四德에 합치시켜 誠의 영원성으로써 천도의 참된 실현을 도식으로 체계화시킨 것은 '誠者 天之道也'라는 『中庸』 章句 20장의 가장 구체적인 상징적 도형화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河의 天命觀과 人間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中庸』의 정신이 내포하고 있는 중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희로애락이 아직 발하지 않음 그것을 中이라고 일컬으며, 발하였으나 모두 마디마디에 맞아떨어짐 그것을 和라고 하니, 中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커다란 근본이며 和라는 것은 천하의 통달된 도이다." 나아가 하서는 인간의

性을 仁義禮智의 理를 갖추고 있는 中으로 파악하면서 이 네 가지는 혼연하여 서로 분리할 수 없다고 보면서, 퇴계와 달리 四端의 四性을 나누어 표시하지 않고 인의예지의 일체성을 강조하는 점을 지적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中圈의 상반부는 陽으로, 하반부는 陰으로 도시함으로써 心이나 中이 음양을 벗어나서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하서는 中이 음양과 별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음양과 뒤섞여 혼동될 수 없음을 中을 한가운데 독립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주목케 한다.

하서의 천명도에서 사단과 칠정을 따로 명시하지 않은 사실은 성리학이 일반적으로 선악의 문제를 發의 주체가 무엇인지를 밝힘으로써 규명하려는 태도와 구별시켜 볼 수 있다. 예컨대 바로 하서 자신과 서로 학문적 교류 관계를 맺었던 퇴계·고봉 사이에서 7년여 동안 지속되어 조선 중기 유학의 대표적인 논쟁으로 발전되었던 四端七情論辭에서 퇴계는 理發을 주장했으나 고봉은 發의 주체를 계속 문제삼았던 사실이다.

이러한 논쟁을 통해 이해할 수 있듯이, 유학에서는 일찍이 도덕을 본성의 실현으로 이해하는 해석이 주된 경향이었기 때문에 본성에 충실한 發現은 선한 행위로 그렇지 않으면 악한 행위로 규정되어 왔으며, 따라서 인간 행위를 실제로 작동시키는 인간 마음의 욕심이나 情이 구체적으로 작용하는 기미에 주목하여 성리학에서는 선악의 분기점으로 삼고자 한다.

따라서 하서는 命의 반대편에 위치한 情圈의 끝에 氣를 기점으로 삼고 善으로서의 和와 惡으로서의 過不及을 도시했는데, 이는 추만의 천명도에서 선악의 분기점을 意로 보면서 善惡七情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과 비교해 볼 때 하서 해석의 독창성을 다시 엿볼 수 있게 한다. 다시 말해, 하서는 命과 性의 연결된 상단을 선악 분기점으로 직결시키고 命과 善을 직선의 연장 형식처럼 똑바로 연결시켜 보임으로써 도식화시켰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선악의 문제에 대해서는 절도에 맞는 中節이나 中和에 부합되는지 아니면 過不及인지에 달라지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렇게 和와 過不及으로 선악을 설명하고 있는 하서의 심성론적 해석은 율곡 이이가 性情이 '곧고 바르게 표출되는 것' [直出]을 善으로, '서로 간에 영향을 주면서 표출되는 것' [橫出]을 惡으로 규정하는 그의 심성정도와의 유사성을 엿볼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하서가 사단·칠정을 도시하지 않으며, 그의 천명도에서 선악의 문제를 和와 過不及으로 다루면서 '發'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는 사실은 퇴계의 천명도 해석과 비교해 볼 때, 분석보다는 종합을 꾀하는 하서의 철학적 정신으로 이해해 볼 수 있으며, 인간의 마음을 天命과 연결시켜 '天命之謂性'의 『중용』에 입각한 天人合一的인 사유라고 하겠다.

河西 天人觀의 의의

하서의 天人합일의 일관된 사유는 그의 「五行人體性情圖」나 「五行事類吉圖」를 비롯한 그의 저술 속에서 도처에 찾아볼 수 있으니, 예컨대 "인간과 만물의 본성을 이루어 天地에 참여함이 어찌 자신만을 완성하는 일이겠는가? 天地 正位와 萬物 生育의 지극한 공을 이루는 것이니, 이는 성인의 일일 것이다." "하늘과 땅 사이에 우뚝 서서 천지의 생성을 돕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좋은 생각이다."

바로 이렇게 天道와 人道, 天命과 人性의 관계를 하나의 도형 속에 도시함으로써 그 天人合

一의 이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천명도」라고 한다면, 하서의 천명도에는 중국은 물론, 조선의 성리학사에 존재하는 어떤 것보다도 천인합일의 이념이 밝혀져 있으니, 그의 천명에 대한 해석에서 인간은 물론 금수나 초목에까지 연결되어 있고 人性에 대해서도 사단과 칠정의 發의 문제 대신 性을 中으로 파악하여 천명과 연결시키고 있는 점 등이 그것을 대변하는 구체적인 이론들이다.

특히 조선 성리학사에서 권근으로부터 시작된 천명에 관한 도설이 퇴계의 천명도, 그리고 「心統性情圖」로 전개된 과정 속에서 하서의 천인관은 단지 성리학의 일반적인 이념을 답습하고 있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달리 성리학 해석의 새로운 장을 확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중용』의 정신에 입각한 천인합일의 사유를 통해 천명과 인간의 심성 그리고 윤리 실천의 문제를 일관된 체계로 집대성하고 있는 하서의 철학사상은 중국의 유학과 조선의 성리학 사상이 공유하는 인본주의 이념에 비춰볼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들어가는 말에서 밝힌 것처럼, 유학의 인본주의 이념은 기본적으로 서양에서 근대 이후 전개되어 왔던 인본주의 이념과는 달리, 인간의 삶과 존재의 본질을 도덕에서 연원하는 것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도덕형이상학의 성격을 띤다.

일찍이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의 인간의 이성(logos)과 윤리(ethos)를 정신(nous)속에 통일시키려는 사유나 근대 칸트의 도덕형이상학 등을 들어 유학의 도덕형이상학적 성격과 비교해 볼 수도 있겠지만, 서구의 근대 인본주의 사상은 인간의 자아 혹은 이성의 절대화를 통해 세계나 자연을 대상화하는 인간 중심적 사유라는 일반적인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中庸』에서의 '天命之謂性'에서 나타나고 있는 天人合一的 사유에 기초한 인본주의 이념에서는 유학의 道德理想으로서의 天道가 인간 性 속에 人道로 실천될 때 비로소 인간의 天命에 대한 인식이 실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칸트의 용어를 빌려 말하면 이론이성과 실천이성의 합일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때의 합일은 인간의 인식과 실천 행위의 합일을 뜻하는 知行合一의 의미가 아니라 천도로서의 인도의 실현을 뜻한다는 데 바로 중용적 천인합일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의 맥락에서, 하서가 그의 「천명도」에서 인간의 性을 中으로 보면서 그의 독창적 해석을 열어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中庸』 首章에서의 喜怒哀樂의 未發로서의 中은 中을 순수한 도덕성으로 이해하며, 밖으로 드러난 것은 和이니, 中이란 다른 말로 표현된 天命之謂性으로서의 性을 뜻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和란 天道의 用의 의미로서 천지만물과 감통함을 뜻하는 것인데, 이는 화합하여 합동하는 同和의 의미가 아니라 바로 調和의 의미인 것이다.

天道와 人性의 자연적인 합일은 일찍이 孔子가 그의 나이 70세 때 '不踰矩'의 경지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하서가 中和라는 중용적 개념에 근거하여 천인합일적 해석을 어느 유학자보다 더 부각시킨 것은 도덕 수양론이나 선악의 문제가 일반적으로 간주되듯이 인간의 개인적이거나 사회적 차원 혹은 정치적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天道와 天命을 실현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河西 金麟厚의 思想과 文學 제3집 21~34p에서)

河西先生의 詩

조 비간사(弔比干辭)

슬프도다 왕자의 충직함이여
마침내 난리 세상 만났오 그려
상저 뒤엔 반드시 옥배 따르니
지탱 못해 하늘이 버린 거로세
그대는 왜 그 사이서 방황만 하며
제 한 몸 없어져도 걱정 않는지
강개히 곧은 말만 늘 들이대니
모두들 우자로만 여길 수밖에
그대의 마음 속을 내 알다마다
어찌 뒤를 염려하여 몸 보전하리
종묘 사직 눈 앞에 망해 가는데
차마 보고 앉아서 구원 않으리
기자는 노예 되고 미자도 가고
서백이 일어나니 조기는 두려워 하내
흰 해를 지적하며 분을 토하되
임금은 살피기는커녕 되려 성내네
나아가 외치자도 얻지 못하니
숨 다하는 그날로 한정했나니
심장이 짜개진들 변할 리 있나
아홉번을 죽어도 더욱 굳는 걸
정기가 엉겨붙고 한이 맺히어
천 년인 오늘에도 닦기질 않아
뉜들 할 말 다하고자 않겠는가만
대개 제 몸 이해를 중히 여기네
逆鱗에 항거하여 苦諫함이여
그대 같은 사람이 몇이 있으리
묵은 역사 뒤적이며 생각하자니
만고를 우러러라 한숨 더하네

吾哀王子之忠直兮　乃逢乎衰亂之世
象箸之必爲玉杯兮　不可支兮天所廢
子何爲徊徨於其間兮　以自致夫沒身而不虞
吐謼言之忼慨兮　衆果以是之爲愚
吾知子之心事兮　豈慮後以全軀
悶宗社之淪喪兮　又何忍乎坐視而不救
箕子爲奴　微子以去
西伯將興　祖己所懼
指白日以致憤兮　筌不察而齎怒
欲更進而不得兮　限之以大故
心雖剖其猶未變兮　抵九死而益固
精凝沍而寃結兮　想至今千載其未沫
人孰不欲盡言而不諱兮　擧皆重乎一身之利害
抗逆鱗而扶顚危兮　其如子者有幾
閱陳編而靜思兮　仰萬古而增欷

금등편을 읽으면서(讀金縢篇)

모재라 한 밤 중에 고요하여 잠 없는데
한 점 등불 파랗게 책 위에 비추누나
주서라 두 세 편을 나아가 뒤적이다
주공이 지어놓은 금등편을 목격했네
寧王이 명을 받아 은나라를 혁명하자

얼마 안돼 포학이 틈을 타 침노했지
민심이랑 왕실은 의위를 만났으니
육척의 어린 임금 누구를 신봉하리
단 모으고 규벽 올려 선왕께 고유할제
외로운 맑은 정성 떠오른 해 같았오
고하는 말 나를 가져 아무를 대하소서
고 받들고 신 섬김은 나만이 능하옵고
元孫은 丕子라는 책임이 있사오니
大命을 떨어뜨려 어찌하잔 말입니까
거북시켜 점을 치니 두 번 다 길한지라
신명을 감통시켜 반응이 온거겠지
글을 가져 궤에 넣고 네 해가 지나가자
하늘이 무심한양 왕이 문득 승하했소
원성이 섭정하자 뭇 소인 의심하니
한 마리 쇠파리가 옥 좌에 날아 붙어
공의 말이 내가 의당 피해야된다 하며
赤舃 은 편안하나 마음은 전전긍긍
거센 바람 빠른 우레 벼와 나무 쓰러뜨려
임금 신하 벌벌 떨며 깊은 못에 다다른양
하늘이 위엄 떨쳐 성덕을 알림이라
글을 꺼내 엉엉 울며 회한이 뒤따랐네
교외에서 친히 맞아 모든 의식 갖췄더니
바람이 머리 돌려 쓰러진 걸 일으켰네
거룩하다 그 충성 幽明에 이르니
적막한 천년 만년 뉘 더불어 짝하리요

茅齋半夜靜無眠　照卷靑熒一點燈
就閱周書二三策　目擊姬公册金縢
寧王受命革商祚　未幾厲虐來侵陵
民心王室屬疑危　六尺冲子難可憑
壇墠圭璧告先王　耿耿明誠如日昇
云予請代某之身　苦考事神吾所能
元孫顧有丕子責　忍使大命墜將興
卽命元龜卜習吉　感通神明終有徵
將書納櫃比四載　昊天不弔王旋崩
元聖攝幼衆所疑　玉上一箇生靑蠅
公謂流言我當辟　赤舃兀兀心戰兢
狂風疾雷偃禾木　君臣惴慄臨淵冰
知天動威彰聖德　發書涕泣慙恨仍
郊前親逆備群儀　反風起偃年乃登
吁嗟忠諒格幽明　寂寞萬古誰與朋

삼월 초닷새 서울에서 내려 가면서 도중의 지낸 바를 그대로 기록하여 우형에게 받들다 (三月初五日下京道 途所歷因以記之奉祐兄)

태학관에 있을 때는 밖을 전혀 나지 않고
반수 버들 바라보아 봄 소식 알았다오
떠날 무렵 갑자기 경복궁을 쳐다보니
온갖 나무 파릇파릇 비 지난 뒤이었네
진흙길 걸어 느즈막에 성문을 벗어나니
땅에 가득 푸른 풀 봄이 온지 오래였군
작은 시내 좔좔 흘러 산돌을 울려가니
갓끈을 씻고파라 아울러 손도 씻고
강머리 길손들은 머리 위에 진달래꽃
옛 동산 일천 송이 그대로 남았는지
어가는 그물 걷어 긴 장대에 걸어놓고
왕왕이 돈 가지고 말술을 사러가네
강물은 새로 불어 가는 배 넘실대니
성낸 물결 솟구칠 땐 산같이 우람하이
바람에 뒤집히어 물방울 옷에 튀니
멀리 보이는 외로운 돛 강 어귀를 거슬러라

숲 사이 높은 집은 주인이 그 누구뇨
영롱한 단청 색깔 창문을 비추누나
긴 뚝의 가는 모래 물에 젖어 못 날으니
말 위에서 고개 돌려 한 벌을 돌아보네
늘어선 천 봉우리 푸른빛 쫑긋쫑긋
서울 향해 읍하며 고후를 짝짓누나
머뭇머뭇 정이 겨워 고향과 꼭 같으니
가벼이 등 돌리기란 차마 못할 일이로세
한 걸음 두 걸음에 북쪽 길 멀어가니
날짜 정한 엄정이라 해지는게 한정이지
논에는 개구리 울어 씨뿌리기 시작이며
들에는 나물 캐는 아가씨들 노래 소리
꿩 울고 나비 날고 새소리 어여쁜데
새로 뿌린 보리밀도 이랑에 가득 찼군
天安이라 성 남쪽 원루 앞을 지나자니
푸른 버들 붉은 살구꽃 집마다 있군그래
산꽃은 피어나고 잎도 차츰 벌어지니
어디멘가 비둘기는 숲 속에서 우는구만
숲을 뚫고 시내로 드니 먼 줄을 모를래라
산 중턱의 구름 안개 팔 다리를 감고 돌아
재 너머 우정에는 숲 그림자 무성하니
남쪽이라 딴 곳보다 양기를 먼저 받네
비렴 살랑 날은 따뜻 복사꽃은 만발하고
錦江은 푸르러라 티끌 한 점 안 보이네
尼山이라 가랑비에 두세 기럭 날아가고
馬고라 긴 바람에 萬竅가 울려대네
아득히 넓은 들이 구름 가에 펼쳐지니
사방의 뭇 봉우리 모두가 培塿로고
바람 더욱 성내어라 은화살이 날아드니
몸을 가린 도롱이는 모질어진 빗자룰세
옷에 젖고 낯에 뿌려 그칠 줄을 몰라하니
이날의 고생이야 견줄 데도 없었다오
늦게 한 집 찾아드니 그집 또한 비가 새어
부엌 질고 나무 습해 밥 짓기가 어려워라
아침내 줄줄 쏟고 또 저녁내 그치잖아
낮을 당해 집 옮기니 크기 겨우 말만 하이
꼼짝없이 못 떠나고 하루를 머물자니
저 옛날 공자님이 진채에 머무신 격
황혼의 젓대 소리 생각이 처량해라
남쪽으로 못 떠나니 시름 더욱 어찌하리
한 밤중에 전전반측 자리마저 비좁으니
머리맡에 말꼴 씹고 바른 편에 종 엎디어
흥얼데며 기대다가 앉아서 조을기도
귀 기울여 새벽 닭 울기만을 기다리네
앞 내라 북덕물 요란스레 흘러내려
긴 밤에 억양 맞춰 항아리 치는 소리
아침이자 반갑게도 하늘빛이 활짝 개서
오라에 묶인 몸이 비로소 풀려난 듯
창랑에 발을 씻고 풀 언덕에 쉬노라니
기수의 맑은 바람 천년의 벗이로세
구름은 뭉게뭉게 물결에 해 번득이니
눈 밑의 호산은 팔구를 삼키겠군
답청 때를 만났건만 상기도 타향이라
호기 올라 속절없이 부모님을 우러르네
完山이라 군저에 등불 한 점 휘황한데
여염에 들어서니 개소리 시끄러워
언덕머리 고사리는 하마 솟아 캐게 되고
석제의 배꽃은 눈송이 휘날려라
시냇마을 찾아들어 벗의 집에 밥 먹으니
소반 위 새 나물은 마늘 푸추 섞였구료
두어 잔 막걸리에 길을 가다 취했어라
남가 태수 하염없이 한 꿈을 부쳤거든
눈을 들어 살펴보니 花原이 십여리라
무릉의 신선 집을 꼭 한 번 찾아야지
물색의 혐의를 받으면 어찌하지
먼지 속을 못 벗어난 핏덩이 신세라서

雲巖이라 산골짜기 호수가 푸르른데
비에 끊긴 긴 다리는 삭은 토막 다루길세
옷을 걷고 발을 붙여 떨어질가 두려워하니
이와같이 삼가는데 허물 어찌 있으리요
새벽 서리 밟고 떠나 栗嶺에 올라서니
묵은 구름 산에 비껴 손으로도 쥘만하이
골짜기 깊게 뻗고 수석도 그윽한데
葛川이 북에 모여 못 빛이 검푸르네
일년이 거의 다가 비로소 돌아오니
갈 때의 가을 새가 지금은 새끼쳤네
풍창이라 설탑에 넋 놀랜 적 몇번인고
거울 속의 붉은 얼굴 여워 다시 추하구료
명년이라 이 날은 또 다시 어디메지
곤해도 시 읊어라 내 어찌 구차하리

太學館前迹不出　春色唯看泮水柳
來時忽見上林苑　萬樹靑靑經雨後
衝泥晩出城東南　滿地碧草春來久
淙淙小澗響山石　欲洗塵纓兼濯手
江頭行旅戴杜鵑　故園千朶知在否
漁家捲網掛長杠　往往持錢沽斗酒
江流新漲漾歸舟　怒波洶湧如山阜
風飜篙水濺人衣　遠望孤帆泝江口
林間高閣問誰主　丹碧玲瓏暎窓牖
長汀軟沙濕不飛　馬上平原一回首
千峯儼立翠參差　拱揖神京配高厚
低佪猶似故鄕情　惆怳不忍輕背負
行行轉覺北路遠　指日嚴程勞卯酉
蛙鳴水田稻初種　散野傾筐歌菜婦
鳴雉舞蝶鳥語嬌　麥有新耕或盈畝
天安郭南院樓前　綠楊紅杏家家有
山花漸亂葉漸敷　何處鳩聲隔林藪
穿林入溪不知遠　半嶺雲嵐繞踠肘

嶺外郵亭樹影繁　益見陽氣南先受
日暖風輕桃李花　錦水綠淨無塵垢
尼山細雨數雁歸　馬皐長風萬竅吼
微茫大野際雲平　四望群山皆培塿
蜚廉益怒銀箭飛　破蓑蒙身如禿帚
霑衣撲面苦未已　此日艱辛無與偶
暮抵人居屋又漏　沈竈難炊濕薪槱
淋淫連朝又終夕　當晝移家大如斗
淹留一日不登途　陳蔡應將同魯叟
黃昏聞笛思凄淸　不因南還愁益又
中宵轉側地傾狹　馬齕頭邊奴伏右
沈吟支倚或坐睡　傾耳苦待鷄鳴丑
那堪濁流聒前川　永夜舂撞煩擊缶
朝來天色喜晴霽　脫然身如去纓紐
滄浪濯足憩莎岸　沂上淸風千載友
雲容搖曳日飜波　眼底湖山呑八九
辰逢踏靑尙異地　岵屺空瞻望父母
完山郡邸一點燈　撲地閭閻喧吠狗
原頭蕨芽己入採　石堤棠梨雪紛糅
溪村入食友人家　盤上新蔬雜蒜韭
山醪數爵路中醉　一夢臨着南柯守
擧目花原十餘里　武陵仙闕要一扣
無端恐被物色猜　血肉未免塵埃臼
雲巖峽住碧琉璃　雨斷長橋猶拉朽
褰衣側足畏傾墜　戒謹如斯寧有咎
晨登栗嶺趁霜寒　宿雲橫山手可取
洞壑逶迤水石幽　葛川北匯潭光黝
一年强半始歸來　去時秋禽今穀穀
風窗雪榻幾驚魂　鏡裏朱顔羸更醜
明年此日復何處　困把行吟余豈苟

師 說

韓 愈

옛날 道를 배우고자 뜻을 둔 자에게는 반드시 스승이 있었다. 스승이라 하는 사람은 道를 전하고, 여러 가지 가르침을 베풀며, 특별히 의문점이 있으면 그것을 풀어주는 사람이다. 사람은 나면서 아는 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의혹이 없는 사람은 없다. 의혹이 있으면서도 스승을 따라 해결하지 않는다면, 마침내 그 의혹이 풀리지 않을 것이다.

나보다 먼저 나서 그 道를 들음이 진실로 나보다 먼저라면, 나는 그를 좇아서 스승으로 삼아야 한다. 만약 나보다 뒤에 났어도, 그 道를 들음이 또한 나보다 먼저라면 나는 그를 좇아서 스승으로 삼는 것이다. 어찌 그 나이가 나보다 먼저인가 뒤인가를 상관할 것인가? 그러므로 귀천 長幼에 상관 없이 오로지 道學이 있는 곳에 스승이 있는 것이다.

아아! 師道가 전하지 않은 지가 이미 오래 되었다. 사람들이 의혹이 없기를 바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옛날의 聖人은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지만 오히려 스승에게로 나아가 배웠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聖人보다 못하면서도 스승에게 배우기를 부끄러워한다. 그러므로 성인은 더욱 성인이 되고 어리석은 사람은 더욱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 성인이 성인이 되고 우인이 우인이 되는 까닭은 모두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식을 사랑해서 스승을 선택하여 이를 가르치면서도 자기 자신은 스승을 좇아서 배우기를 수치스럽게 생각하니, 이 얼마나 사리 판단에 어두운 것인가. 아이들의 스승이라는 사람은 책이나 가르쳐 주고 句讀나 예습시키고 있으니, 내가 말하는 道를 전하고 의혹을 풀어주는 스승이 아니다. 구두를 모르는 것은 스승을 두어 가르치면서 의심나는 것은 스승을 좇아서 배우려 하지 않는다. 무당, 악사, 백공들은 서로 스승을 삼아서 기술을 배우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신분이 미천한 이들도 스승을 좇아 배우는데, 사대부 계급에서 스승이니 제자니 하는 사람들을 보면, 떼를 지어 모여 가지고 비웃는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으면 "저 사람과 저 사람은 나이가 비슷하다. 도의 정도도 서로 비슷하다. 스승의 신분이 낮다면 수치스러운 일이고, 스승의 신분이 높다면 이것은 아첨하는 데 가깝다."고 말한다.

아아! 師道가 회복될 수 없음을 알겠다. 성인에게는 사도가 있었으니 공자는 장흥, 사양, 노담을 스승으로 삼았다. 담자의 무리는 그 어짊이 공자에게 미치지 못하였다.

공자는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제자라고 해서 반드시 스승만 못하란 법이 없고 또 스승이라고 해서 반드시 제자보다 현명한 것도 아니다.

道를 듣는 것에 선후가 있어 스승과 제자로 나누어지며, 예술, 학업에 전문적 연구를 하여, 다만 좋은 점을 취하여 배우고 나쁜 점은 보지 않을 뿐이다.

河西와 訥齋, 六峯, 思庵

동양학 연구원장 朴 來 鎬

先生의 從遊를 언급하자면 지역 출신을 비롯 成均館 司馬試 동기와 賜暇讀書로 湖堂契會圖에 나타난 名賢에 이르기까지 그 수효는 헤아릴 수 없다.

本會는 그 많은 從遊가운데 몇몇 분을 선정하여 先生과의 관계와 그 분들의 학문세계를 본회보에 연재하기로 하고 두 번째로 訥齋 朴 祥(1474~1530)과 思庵 朴 淳(1522~1589) 선생 등 忠州 朴氏 一家의 학문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찬성공 諱智興과 夫人 徐氏 사이에 荷村 (楨) 訥齋 (祥) 六峯 (祐) 등 삼형제가 태어났다. 어느날 夫人 徐氏가 남편 찬성공과 光州로 내려오다가 정읍과 장성 사이에 있는 입암산 아래 객점에 이르렀는데 日暮가 되어 유숙하게 되었다. 이날 밤 徐氏의 꿈에 입암이 벽력같은 소리를 지르며 굴러 내려오자 그 바위를 치마로 받고 잉태되어 태어난 訥齋 선생은(1474년) 도량과 자질이 뛰어난 형 荷村公 (楨)의 가르침을 성실히 받았기 때문에 〈訥齋集〉에 향토시가 전하는데 이에 담긴 愛鄕心과 향토적 정서는 형으로부터 받은 영향이 많다.

訥齋 선생의 벼슬살이는 다음과 같다.

30세(연산 9년) 兵曹佐郎(正6品)

32세(연산 11년) 全羅道事(從5品)에 승진

33세(중종 1년) 長興庫令(從5品)에 除授되었다가 司諫院 獻納(正5品)으로 승진

34세(중종 2년) 고시관에 제수되었으나 사퇴. 그뒤 韓山郡으로 出補되었다가 宗廟署令(從5品)에 제수, 곧 이어 昭格署에서 근무

35세(중종 3년) 臨皮縣令(從5품)을 제수

38세(중종 6년) 弘文館 修撰(正6品) 이어서 校理(正5品) 및 經筵 侍讀官(正5品)에 승진

39세(중종 7년) 弘文館 應敎(正4品) 潭陽府使(從3品)에 승진

43세(중종 11년) 儀賓府 都事(從5品) 및 掌樂院 僉正(從4品)

44세(중종 12년) 順天府使(從3品)

46세(중종 14년) 儀賓府 經筵(從4品)에 제수, 다시 繕工監正(正3品)에 올랐으나 취임하지 않음

47세(중종 15년) 御使에 제수되어 湖南의 재해를 살핌

48세(중종 16년) 尙州牧使(正3품) 및 忠州牧使(正3品)를 역임

위에서 밝힌 訥齋 선생의 관직생활에서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해 보고자 한다. 하나는 전라도사로 있을 때 연산군의 총애로 횡포가 심했던 牛夫里를 나주의 錦城館에서 杖殺하고 심한 고

뇌에 빠진 적이 있었다. 연산의 부름을 받고 서울로 올라가던 길에 中宗反正이 일어나 간신히 화를 면하였다.

또 하나는 前王妃 愼氏의 復位를 꾀하면서 겪은 사건이다. 冲庵 金 湜, 石軒 柳 沃과 함께 大義실현을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작성한 이 상소는 冲庵이 짓고 訥齋가 수정한 것으로 임금께 올렸다. 상소의 虛頭를 보면 潭陽府使 臣 朴 祥, 淳昌郡守 金 淨 等 上言于 主上殿下라 하여 石軒이 이에서 빠진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陶庵 李縡가 엮은 三印臺 비문에서 밝히고 있다. 이 비문에 의하면 순창군의 이십 리 지점에 剛泉寺가 있는데 그 절 남쪽에 三印臺가 있다. 옛날 순창군수 김 정, 담양부사 박 상, 무안현감 유 옥 등이 이곳에 모여 封疏를 의논하였다고 한다. 세 분이 疏章을 초를 잡을 때에 각기 지니고 온 직인을 소나무에 걸어 놓았다고 하여 三印臺라고 했다. 그런데 이 상소문에 石軒 선생의 이름이 없음은 무슨 때문일까. 눌재와 충암 두분이 石軒에게 이르기를 우리들은 다 老親이 계시는데 그대는 봉양할 형제가 없어 죽게 되면 孝를 해치는 일이 된다고 하여 石軒의 이름만은 빼게 된 것이다고 하니 이 상소는 先賢들의 孝親思想을 느끼게 한다.

先生과 訥齋 선생과의 관계

先生이 신동이라는 소문을 들은 訥齋 선생은 기쁜 마음으로 만나보시고서 뭇사람들에게 말씀하기를 "예로부터 奇童은 삶을 좋게 마치지 못한데 오직 이 사람만은 당연히 좋게 삶을 마칠 것이다"하였는데 그 말씀이 과연 들어 맞았다.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진 先生은 訥齋의 인품과 문장을 존경하여 좋아하셨기에 訥齋께서 山僧에게 지어주신 韻字에 次韻을 지어 그 山僧에게 지어주셨으니 그 시구(詩句)는 이렇다.

부들 방석 한 자리에 이슥히 앉았으니, 지극히 고요해 세상 수다 도리어 싫어지네.

푸른 등불 돋우어라 찬 밤이 사뭇 기니 시 읊자 저도 몰래 두 어깨 우뚝 솟네.

蒲團一榻坐仍久　自剪靑燈寒後永
靜極還嫌俗耳嘈　吟詩不覺兩肩高

얼마 뒤 訥齋 선생의 정숙한 언론에 감동된 先生은 訥齋 선생을 찾아가 뵈었으며 돌아오실 때 訥齋 선생은 河西 선생님께 이별의 정표로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준 것으로 여겨진다.

수풀 아래 한 사람도 오는 이 드물어라.
세상 밖이니 무엇이 옳고 그름 있으리야.
가랑비에 젖은 옷 게을러 만지지도 못하고
달 밝은 석교를 술에 취해 도움 받아 돌아가네.

一人林下見來稀　物外何曾有是非
細雨濕衣慵不理　石橋明月醉扶歸

이 시에서 두분은 長幼老少의 벽을 허물고 벗이라는 느낌을 주고 있으니 벗이란 그 德을 벗한다는 孟子의 말씀을 실천하신 것으로 여겨진다. 스승인 慕齋 金安國은 역시 河西를 少友라 지칭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訥齋 선생의 아우 六峯公(祐)(1476~1549)에게는 어느 해 인지는 몰라도 3월 5일 서울에서 고향으로 내려온 도중에 보았던 것들을 그대로 기록하여 六峯에게 봉증한 長篇古詩가 있는데 앞부분만 옮겨본다.

태학관 앞을 전혀 나오지 않았기에, 泮水버들 바라보고서 봄소식 알았다오. 떠날 무렵 갑자기 上林園을 쳐다보니, 온갖 나무 파릇파릇 비 지난 뒤이었네. 진흙 뚫고 느즈막에 성문을 벗어나니, 땅에 가득 푸른 풀 봄이 온지 오래였군. 작은 시내 좔좔 흘러 산돌을 울려가니, 진영을 씻고파라 아울러 손도 씻고. 강머리 길손들은 머리 위에 진달래꽃 옛 동산 일천 송이 그대로 남았는지. 漁夫들은 그물 걷어 긴 장대에 걸어 놓고, 이따금씩 돈 가지고 말술을 사러 가네. 이하는 줄인다.

太學館前迹不出　春色惟看泮水柳
來時忽見上林苑　萬樹靑靑經雨後
衝泥晩出城東南　滿地碧草春來久
淙淙小澗響山石　欲洗塵纓兼濯手
江頭行旅裁杜鵑　故園千朶知在否
漁家捲網掛長杠　往往持錢沽斗酒

先生은 위에서 밝힌 長篇의 글을 많은 從遊가운데 꼭 六峯公에게 봉증한 것으로 보아 두분의 문학사상과 정분이 자별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訥齋 선생 형제분과의 從遊에 이어 六峯公의 아들 烟波 思庵에게까지 交遊는 계속된다.

烟波處士와 思庵

六峯公의 큰아들 烟波處士의 이름은 澥(1511~)는 出仕하지 않고 隱德篤行으로 삶을 一貫한 處士님이다. 河西 先生보다 일년 뒤에 태어난 분이기에 友情이 더 깊었는지 그가 거처한 淸香堂에 詩 두 편을 써 주셨으니 그 詩도 다음과 같다.

① 마구 淸香이라는 號를 달고, 풀을 베며 이 속에 살고 있구려. 찬 모습은 눈 위의 달에 어울리고, 수려한 경치는 봄바람 차지한거라. 靑雀머리 黃龍 꼬리의 배요, 붉은 눈동자에 싱싱한 머리의 늙은일세. 武陵桃源이 어디가 긴고, 물결 위에 붉꽃 마침 흘러가네.

讀揭淸香號　誅茅寄此中
寒姿供雪月　秀色領春風
靑雀黃龍舳　紺瞳綠髮翁
武陵何處是　波上倘流紅

② 옛 말을 이제야 그 뜻 알고서, 그대를 만나니 책 읽은 것 보다 나아, 威儀 갖춘 모습은 소나무 굽은듯 하고, 가슴속은 물처럼 공허함일세.

어찌 생각했겠나 지난 가을에 헤어지고서, 만난 것이 一年이 더 되었구려, 다시금 또 떠나가길 말 하자니, 시름찬 생각 마구 어지럽구나.

古語今知實　逢君勝讀書
儀容松偃蹇　襟袍水空虛
豈意前秋別　相看一歲餘
無端却告去　愁思讀紛如

先生께서 써준 위 淸香堂詩 두 편은 烟波公의 인품을 짐작케 하는 글이다. 이어 烟波公의 아우 思庵相公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思庵相公(1522~1589)의 이름은 淳이요 字는 和淑이며 思庵은 아호 시호는 文忠이다. 先生보다 9년 뒤 나주에서 태어난 思庵은 徐花潭의 門人으로 明宗 8년 1553년에 庭試에 급제한 뒤 成均館典籍 工曹佐郎과 弘文館修撰, 校理, 吏曹正郎을 거쳐 湖堂에 들어갔다. 林百齡 시호 사건으로 윤원형에게 몰려 파직되었다가 韓山郡守에 발령되었고

成均館司成과 侍講院輔德, 司憲府執義, 弘文館直提學에 이르렀다. 大司諫이 되어서는 요승 普雨의 죄를 따져 극형을 구형했으며 兩館大提學 漢城判尹 判書를 차례로 거쳐 宣祖 5년 1572에 右議政을 맡았으며 곧 영의정이 되었다. 정승으로 14년을 있을 동안 신망이 높았으나 栗谷과 退溪를 도와주며 변론한 까닭에 西人으로부터 주목되었다. 東西 분당이 확실히 된 후 退職하여 永平 白雲山 아래 은거하였으며 문장은 漢唐체를 본받아 특히 詩를 잘지어 문집 6권을 남겼다.

先生은 어느날 景範에게 편지하고서 아울러 시 세 편을 지어 그 인편에 和淑에게 부치셨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先丈과는 일찍이 친한 터지만, 그대 또한 무리에 뛰어난 정분있어, 서로 형식 잊어버린 술상 머리에 취해 읊은 사람이 가소로웠네.

先子曾傾蓋　吾君亦絕倫
相忘盃酒裡　可笑醉吟人

正字는 요즈음에 어떠한지 원, 시를 지어 벗님에게 부치고 지고, 강남이라 매화가 피려 드는데, 홀로 술을 대하니 기분이 안좋다.

正字今何許　將詩付故人
江南梅欲發　對酒獨傷神

화숙과 헤어진 적 하마 오래라, 고명은 아마 날로 새로울터지, 보낼 데가 꼭 있어 시를 짓자니 吟鬢은 추운 봄이 두렵네 그려.

和叔分携久　高明想日新
裁詩聊有寄　吟鬢怕寒春

先生의 나이 9년이나 위이지만 9년 아래인 思庵에게 이처럼 정이 넘치는 시를 지어 주셨다.

結語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先生께서 忠朴一門과는 訥齋 六峯 형제의 從遊에 이어 烟波 思庵 형제에 이르기까지 交遊가 계속되었으니 이는 君子의 交遊란 나이를 앞세운 것이 아니고 학덕을 앞세운 것이다는 가르침을 준 대목이라고 하겠다. 또한 先生의 從遊를 고찰하면서 忠朴一門에 五賢이 배출되었다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荷村 訥齋 六峯 三朴을 지칭하여 중국 宋나라 三蘇에 비교해 찬미한 것이 과장이 아니다는 것을 밝혀 둔다.

대숲에 앉아 天命圖를 그리네

白承鍾 지음(서강대 교수)
대동출판사

祝 辭

光州鄕校 典校 申 亨 澈

月白雪白天地白이라 했듯이 50cm의 큰 눈이 왔습니다. 아마도 오는 해는 雨水豊足하여 五穀이 登豊할 徵兆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河西先生의 第4回 山仰會 정기총회를 開催함에 있어서 遠近各地에서 雲集해 오신 詞林 여러분, 아직도 坊坊曲曲에서 慕賢之心이 感發되어 山程水路를 뛰어넘어 저 荒廢해 가는 倫理道德이 아침저녁으로 들끓어 오르는 듯 걱정들이 한풀 지워진 것만 같습니다.

尊敬하는 斯文여러분, 河西 先生이 일찍이 正道 庚午 七月 十九日에 生하시자마자 능히 밥 먹고, 능히 말하며, 말인즉 곧장 글귀로 만들어 내셨던 것들이 온 좌석을 놀라게 하셨다고 합니다. 嘉靖庚子에 文科 及第하실 때 仁宗大王께서 春宮에 德을 길러주시고 中宗大王께서 輔導의 任을 맡기시니, 仁廟께서는 깊이 先生의 道德學問의 떳떳함과 誠心敬禮를 짐작하시고 자주 先生을 對하시와 潛龍의 德이 千古異日인 唐虞의 政治를 이루어낼 것으로 기대하셨습니다. 乙巳 仁宗 逝去하셨을 때에는 살고 싶지 않다고 하시고 仁宗 諱日에는 深山窮谷에 들어가셔 痛哭을 하셨고, 그후 累次除拜가 있었으나 一切 사양하시고 51세이신 庚申 正月에 卒하였다고 합니다.

周易에서 말하기를 立春之道曰陰與陽이요 立地之道曰柔與剛이요 立人之道曰仁與義라고 하듯이 대범 사람이 능히 天地로 더불어 같이 서서 그 三者를 다하셨으니 先生께서는 그 大綱이 이미 스셨고 또한 百家經傳에도 물샐 틈없이 窮究하셨으며 그 在家에도 그 儀章度數가 秋毫라도 放過함이 없으시고 그 講論의 자리에서도 爲道의 大體가 洋洋하여 萬物을 發育하듯함이 하늘 높이 솟아야 하고 그 至大함에 이르러서는 그 적고 큼을 隱包하여 아무것도 유실됨이 없어야만 王道가 비로소 갖추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仁廟께서 聖壽無疆하신 위에서 先生의 抱負가 展布되셨드라면 그 天地範圍化했을 것이 明若觀火일 것이니 皇天이 不佑하사 志士들의 永嘆에 어찌 痛嘆을 지울 수 있으리까?

先生晩歲때 沈宜誠服하신 것이 오래도록 그 道가 더욱 顯著할 것이니 이것이 不寄之功著와 無跡之化가 百世토록 뻗쳐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先生의 詩文 그 많은 瓊琚玉句를 가지고 于今 四百年 동안 綿綿이 이어져 오는 詞林들의 學問鍊磨에 그 얼마나 크나 큰 鞭策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 世上 사람들은 우리 大韓民國이 世界의 一等經濟大國, 科學大國, 體育大國에 곧장 進入한다며 기뻐하고 기대하는 것만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마는 倫理道德과 禮義廉恥에 대한 一等國이 되어야 한다고 기대한 사람은 아직까지 한 사람도 보지 못한 것들이 甚히 한탄스럽습니다. 물론 經濟가 一位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오직 倫理道德이 積立된 위에서 만들어진 것들이라야만이 튼튼한 경제가 된다는 것을 왜들 잊으셨는지 우리 다같이 鼓吹하고 勞力합시다. 감사합니다.

2005. 12. 8

▶ 제4기 정기총회 및 학술강연회
2005년 12월 8일 광주향교 유림회관

제4기 山仰會 정기총회 및 학술강연회가 150여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8일 광주 향교 유림회관에서 열렸다. 朴鍾達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광주 향교 申亨澈 典校의 축사가 있었다.

山仰會 사업보고, 회무 결산보고에 이어 임원을 선출하였는데, 박종달 회장이 연임되었고, 회장단 및 임원 인선은 신임회장에게 일임하였다. 이어서 2006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이 심의 통과되었다.

총회가 끝난 후 전주대학교 吳鍾逸 교수가 「河西 先生의 中和思想」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河西 사상의 중핵을 이루는 中和思想을 선생의 天命圖를 중심으로 명쾌하게 열강을 하여 회원들이 조용한 가운데 경청하였다.

이어서 李炳玹 연구위원이 「정조대왕 문묘 종향 윤허 비답문」을 낭독하고 해설하였다.

▶ 산앙회 임원회의 개최 – 필암서원 춘향제 논의

지난 3월 3일 미가에서 산앙회 임원회의가 열렸다. 산앙회 임원 친목과 돌아올 필암서원 춘향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모인 임원회의에서는 춘제에서 했던 강연을 하지 않고 河西 先生의 '復性賦'를 노강 박래호 집강이 낭독하고 간단한 해설을 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山仰會報 원고 청탁도 논의되었는데, 하서와 눌재家와의 교유에 대해서는 노강 박래호, 송재 나세찬과의 교유에 대해서는 나천주 집강이 맡기로 했다. 이하영, 장원석(성균관 유도회 부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날 식사 대접은 장원석 부회장이 하였다.

▶ 山仰會 회장단 및 임원 상견례

2006년 3월 3일 12시 미가 식당에서 새로 구성된 회장단과 임원진들이 상견례를 갖고 친목을 돈독히 했으며, 山仰會의 2006년도 사업계획과 필암서원 춘향제 및 몇 분과모임 활성화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박종달 회장을 비롯하여 이하영(전주), 이재승, 장원석 부회장과 김용숙 부회장, 박래호 총무, 양희택 재무, 김재수 편집간사 등 다수 임원이 참석하였다. 이날 文正公派 金宅洙 都有司가 배석하여 임원진의 노고에 감사하고 격려하였다.

▶ 山仰會報 제7집 편집회의 및 초정연사 선정

지난 5월 12일 예원식당에서 박종달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앙회보 편집계획 및 하계 학술강연 연사초청 문제를 논의하였다. 하서 선생의 문학과 사상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강연했으나, 이번에는 역사적으로 조명해 보자는 의견에 따라 '조선 전기 士林政治와 河西 金麟厚'를 쓴 백승종 교수를 초정하기로 했다.

산앙회보에는 김왕연 교수의 '天命圖에 나타난 天人觀' 등을 싣기로 하고, 河西와 교유한 인

물로는 눌재 박상, 육봉 박우, 사암 박순에 대해 노강 박래호 총무가 기고하기로 했다.

▶ 모암 金老洙 회장 국제 로타리 '超我의 봉사상' 수상 기념비 제막

본회 고문이신 모암 金老洙 회장의 국제로타리 '超我의 봉사상', '국제 로타리 재단 특별봉사상', '클럽 週會 皆參 30년상' 수상 기념비 제막식이 2006년 4월 8일 장성군 황룡면 맥호리에서 거행되었다. 오재경 RI 전 이사를 비롯한 50여 명의 로타리 회원들과 장성군민, 울산 김씨 종친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비 제막식이 거행되었다. 식이 끝난 후 河西 선생의 생가 터와 인접해 있는 회장의 고향집에서 점심과 다과를 대접하였다.

RI 전이사요 전공보처장이었던 오재경 님은 축사에서 "국제 로타리 본부 명예의 전당에 걸려 있는 김노수 회장님의 사진과 우리 나라 로타리 본부의 명예 전당에 걸려 있는 선생님의 사진을 통해서 초아의 봉사와 가장 훌륭하게 봉사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거두어들인다는 모토가 빛나게 살아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 河西先生集 13권 13책 日本 유일본 발견

일본으로 유출된 한국 고서 5만권의 상세한 목록이 한 일본인 학자의 일생을 바친 작업 끝에 출간되었다.

후지모토 유키오 일본 도야마 국립대 교수는 최근 "일본 현존 조선본(책) 연구" 중 첫권인 集部를 발간했는데, 여기에 河西 先生集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安平大君의 비해당선반산정화(匪懈堂選半山精華) 6권 2책이 발견되어 주목을 끈다.

▶ 산앙회 회원 동정

본회 총무이신 蘆江 朴來鎬 씨가 2005년 10월 5일 장성 군민의 날 행사에서 교육 문화예술 부문의 군민의 상을 수상했다.

曺上舍 善卿 淑 以詩示同泮和之

河西 金麟厚

술이 맞어 밤조차 한창 길어라
시를 읊자 생각이 더욱 새롭네
참으로 악한 무리 제거가 되니
선비들 뜻 펼날 보겠군 그래
정히도 밝고 밝은 날이 왔는데
바른말 하는 선비 뉘가 되려나
산 동쪽에 봉황새 울음을 우니
명년 봄 기약하세 그대와 함께

中酒宵方永　吟詩思轉新
眞逢凶醜去　佇見士林伸
政是熙熙日　誰爲謇謇臣
朝陽鳴彩鳳　與子共明春

▶ 춘향제 봉행

本院은 2월(양 3. 20) 春香祭를 엄숙히 奉行하였다. 本郡 김홍식 군수 등 각급 기관장과 儒林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시 30분부터 거행되었다.

初獻은 전북 유림 李炳春, 亞獻官은 경북 안동 유림 退溪 先生 후손 李東植, 終獻은 광주 유림 元老 尹淙根 氏가 각각 맡았으며, 陳設은 보성 유림 安泰淳, 執禮는 광주 유림 李宰喆, 大祝은 서울 成均館 典儀 金炫仁이 맡았다.

2부 행사로는 本院 山仰會 총무 朴來鎬의 〈河西集〉 가운데 「復性賦」강론이 있었다.

▶ 2006년 춘향제에서 강론

이에 앞서 낭독해드린 河西 先生의 復性賦가 담고 있는 내용을 감히 요약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復性賦는 先生께서 中庸을 通讀하시고 中庸이 담고 있는 진수만을 뽑아 大學과 道統의 맥락을 연결지어 쓴 글로 子思의 道統을 밝혔다고 보여집니다. 復性이란 두 글자는 大學에서 明德을 밝혀 그 本性을 회복한다는 것이며, 本 文章은 첫머리인 天命之性과 陰陽 五行으로 시작이 되었으며 중간에서는 孔夫子의 道統이 異端에 依해 어두어가기 때문에 이를 걱정한 나머지 子思께서 中庸을 執筆하였다는 것을 言及하시면서 子思의 道統을 이어받은 孟子의 性善說을 言及하셨습니다. 이어 唐나라 이고의 공부를 약간 칭송하셨고 先生 자신의 공부가 부족하다는 것을 밝히시면서 韓退之의 三品性論이 정밀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셨으며 中庸 工夫에서 핵심인 明誠 두 글자로 結論을 지으셨으니 中庸으로 시작하여 中庸으로 마감하신 것입니다.

이 復性賦를 다시 요약한 글구에서는 맑은 물이 흙탕물로 되었다가 다시 맑은 물이 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至善의 本性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노력과 희망을 아울러 저희들에게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최근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노력과 성과도 아마 이 復性賦에서 얻어낸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하면서 천견박식한 저의 講評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4회 河西先生 추모 전국 한시 백일장 개최

장원에 부산 이종영씨 次上에 공연웅, 안대환씨

지난 5월 6일 河西 김인후 선생을 추모하고 선생의 사상과 정신을 후학들에게 전수하고자 제4회 백일장 대회가 필암서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詩題는 〈回憶卯山慟哭〉으로, 장원에는 부산의 이종영씨가 次上에는 공연웅(광주), 안대환(서울), 次下에는 김점문, 김용락, 유수락씨가 각각 뽑혀 상금을 받았다.

〈壯元詩〉

– 回憶卵山慟哭 –

白齋 李淙榮

大節忠臣見古今　慕賢筆院後生尋
哭聲如聞卵山麓　血淚何露君子襟
忽以昇遐哀慟切　常令召對感恩深
鵑啼月落誰堪聽　焉忘丹衷萬姓欽

회억난산통곡

백제 이종영

큰 절의의 충신을 예나 지금이나 뵈인 듯하여
선열을 사모하는 후생들 필암서원을 찾아왔소.
통곡하는 소리는 난산 기슭에서 들린 듯 하는데
피눈물은 어찌하여 군자들의 옷깃을 적셨을까.
갑자기 임금님 승하하시니 애통한 마음 간절하고
항상 임금님 대할 제 느낀 은혜 깊었네.
달 떨어질 제 두견새 우는 소리 누가 듣겠는가?
어찌 잊으랴! 일편단심 만백성 공경하누나.

▶ 成均館 附設 釋尊 敎育院 修鍊會

6월 2일과 3일 1박 2일로 成均館 附設 釋尊敎育院生 35명의 修鍊會를 필암서원에서 가졌다. 이날 12시 權五興(技能保有者) 院長 일행은 謁廟禮를 마치고 이어 淸節堂에서 權 院長의 인사말씀이 있었다. 이어 本會 常任副會長 金容淑님의 환영사가 있었다.

金暻善 교수가 '조선의 서원제도'라는 주제로 발표하였고 沈星求 석사가 '河西 先生의 理氣論'에 대해 발표하였다. 本會 朴來鎬 총무가 〈河西集〉 가운데 大學講義跋을 낭독하고 설명하였다.

▶ 김흥식 장성 군수 이임기념식 참석

지난 6월 30일 장성군민회관에서 民選 초·재·삼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金興植 군수에게 書院 및 山仰會는 紀念品과 離任紀念詩帖, 화환을 전달하였다.

▶ 신임 유두석 장성 군수 취임기념 화환 전달

지난 7월 3일 本院 山仰會는 유두석 군수 취임을 축하하는 화환을 전달하였다.

▶ 선비학당 전남도 역사 재현 지원 사업 선정

필암서원 선비학당(장성군청 부설)에서는 月火 水 木요일에 선비교육을 계속 실시해 왔는데, 그 실적을 인정 받아 지난 4월 22일에 전라남도 역사재현 집중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토요일, 일요일에도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전하는 지혜, 예절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부모는 아이를 복 받는 체질로 만들어 주는 부모입니다. 어떻게 복 받는 체질을 만들 것인가? 여기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먼저 예절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번째로 정직하고, 마지막으로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추면 능력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우선 순위가 바뀌면 곤란합니다. 흔히 능력이 먼저 오고 예절이 뒤에 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어도 예절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따르지 않습니다. 복은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복을 받으려면 사람들이 마음으로부터 존경하고 좋아할 수 있는 품성을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복 받는 체질의 첫번째 원칙은 예절입니다. 예절은 제대로 사랑받고 제대로 사랑을 전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모든 생명은 사랑과 관심 속에서 성장합니다. 예절이 바른 아이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자신이 받은 사랑을 세상에 되돌릴 줄 압니다. 참다운 예절은 열린 가슴에서 나오며, 웃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은 생명의 근원에 대한 경외감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사람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 천지부모에 대한 예의도 가르쳐야 합니다. 예절 교육은 영어나 피아노를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더 수준 높은 교육입니다. 예절 교육만 철처히 받아도 그 아이는 어디서든 사랑을 받습니다.

내가 몇 년 전에 경험한 일입니다. 큰 집에 제사를 지내러 갔는데 워낙 대가족이 되다 보니 제사를 한번 지내는데 백 여명씩 사람들이 모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일본에서 온 아이, 미국에서 온 아이, 시골에서 온 아이, 서울에서 온 아이 등 각지에서 몰려온 아이들이 세 살에서부터 열 살까지 골고루 다 모였습니다. 아이들은 저희들끼리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데, 그 중에 한 녀석이 갑자기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형이 갖고 있는 장난감을 뺏으려다 얻어맞은 것입니다. 부모들은 형이 돼서 동생을 안 줬다고 야단을 치니까 이번에는 큰 녀석도 함께 울어댑니다.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는데 그 때, 아주 눈에 띠는 꼬마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꼬마는 주변에 있는 형들과 아주 잘 지냈습니다. 형의 장난감을 모두 제 것처럼 갖고 노는데 방법이 기가 막힙니다. 형 옆에 엉덩이를 탁 붙이고 앉아서 "형, 그거 재미있어?"합니다. 형은 "응, 재미있어"하지요. 꼬마는 같은 말을 한두 번 더 하다가 "형, 이거 나 잠깐 갖고 놀면 안돼?"하고 웃으면서 부탁합니다. 형이 보니까 얘가 훔쳐갈 것 같진 않고, "그래, 갖고 놀아라"하고 줍니다. 나는 호기심에 그 꼬마가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일본에서 나서 일본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예절 교육을 받은 겁니다. 꼬마는 상대방이 허락하기 전에는 절대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는 규칙을 배웠고, 갖고 싶을 때는 기분 좋게 빌려 쓰는 방법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릴 때 예절 교육을 잘 받으면 커서도 조화로운 인간 관계를 맺을 줄 압니다.

예절은 건강에도 좋습니다. 자기를 낮춤으로써 에너지가 안으로 모이게 됩니다. 마음이 겸허해지고 뇌파가 안정됩니다.

이승헌 지음『아이 안에 숨어 있는 두뇌의 힘을 키워라』에서(한문화)

2006년도 사업계획

1. 目的 및 方針

- 河西先生의 學問과 思想의 硏究와 아울러 지속적 宣揚을 도모한다.
- 會員의 迎入, 회원간 원만한 의사소통으로 조직의 능률성을 증대한다.
- 域內 교육기관, 학술단체, 유림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한다.
-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다.

2. 조직활동 방침

- 하서선생의 학문과 사상에 관련된 학술강연회를 실시한다.
- 본회 활동사항 홍보를 위한 소식지(산앙회보)를 발행 보급한다.
- 하서선생 유시 유문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추록하고 관리한다.
- 국역 하서 전집의 보급에 노력하고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書院의 삭망봉심과 봉심 후 강회 실시를 홍보하여 성학 수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발기인으로 미입회자 및 학술 연구에 관심 있는 시문을 대상으로 신규영입을 적극 추진한다.
- 하서선생의 유적을 발굴하고, 회원들의 답사를 통하여 학문과 사상의 터득을 도모케 한다.
  – 난산, 생가, 묘소, 서원터, 부조묘, 순창 훈몽제 –
- 유관기관의 연락 및 홍보 강화를 위하여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향교, 서원, 유림단체, 지자체, 하서기념회, 문정공파 종회 등 –
- 회계의 투명성 제고에 힘쓰고 균형 예산을 편성하여 자립기금에 기여한다.

山仰會 任員名單

〈職名, 姓名, 本貫, 雅號, 住所, 電話番號〉

山仰會 任員 名簿

• 상임고문, 次山, 安晉吾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463-19 동진맨션 3동 103호
062-512-7475

• 회장, 松石, 朴鍾達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631-1 현대아파트 105동 403호
062-262-1779, 011-361-6779

• 상임부회장, 素巖, 金容淑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풍림아파트 101동 608호
062-672-0150, 011-603-5724

• 부회장, 鰲山, 吳仁均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536 대주파크빌 102동 901호
062-655-9922, 011-618-0005

• 부회장, 槿菴, 張源碩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라인아파트 101동 303호
062-223-3305, 011-644-0973

• 부회장, 松崗, 李載承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초포리 867
061-322-8100, 011-602-6789

• 부회장, 然哉, 李昆煥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789 부영아파트 506동 203호
053-321-4717, 011-9570-3717

• 부회장, 紹强, 李夏永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신리 지큐빌아파트 107동 1101호
063-282-7608, 011-9640-7608

• 부회장, 愚公, 宋俊彬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151 현대아파트 103동 902호
042-221-3377, 011-9772-0668

• 총무, 蘆江, 朴來鎬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충무2동 973-17
061-393-8880, 019-832-4562

• 財務, 平齋, 梁熙澤, 南原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필암 343번지
061-393-5874, 016-9646-5838

• 監査, 仁松, 金炳槿, 蔚山
광주시 서구 화정1동 현대A 103동 705호
062-373-2599, 011-600-2599

• 監査, 誠軒, 李準泳, 慶州
장성군 동화면 동호리129-5
061-395-0755, 010-4633-1311

山仰會 幹事 名簿

• 栢陽, 李忠源
장성군 장성읍 청운2동 1057-3
061-392-6500, 011-627-1057

• 金載國, 蔚山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337
061-394-0833

• 地域幹事, 鳳耕, 羅天柱, 錦城
장성군 삼서면 금산리 1구 496번지

〈職名, 姓名, 本貫, 雅號, 住所, 電話番號〉

061-394-2315, 016-684-2315

• 地域幹事, 申文秀, 高靈, 晩松, 月汀
전주시 완산구 서 서학동 53-2 월정서예원
063-282-4427, 016-627-4427

• 地域幹事, 尹柱男, 坡平, 克齋
김제시 백학동 141-1
063-546-0850, 016-9899-0851

• 地域幹事, 李世煥, 固城, 葛川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2가 393-1 갈천서예원
063-285-7755, 011-670-7855

責任 研究 委員

• 道學, 吳鍾逸, 同福, 臥龍
전주시 완주군 효자동3가 전주대학교
063-220-2306

• 道學, 朴來鎬, 泰仁, 蘆江
장성군 읍 충무2동 973-17
061-393-8880, 019-832-4562

• 節義, 金鎭雄, 蔚山, 晩巖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현대아파트 110-2003
051-265-4237, 011-565-4237

• 文藝, 李炳玹, 光山, 淸下
장성군 장성읍 청운1동
061-392-1407, 011-9440-1401

• 文藝, 金梓洙, 蔚山, 好然
광주시 남구 진월동 392 금광하늘연가 102동 901호
062-653-6395, 016-705-6395

• 文藝, 金長洙, 善山, 晨溪
광주시 동구 지산2동 342-52
062-232-5577, 062-622-5577

산앙회 회보발간 편집위원

• 委員, 金梓洙
광주시 남구 진월동 392 금광하늘연가 102동 901호
062-653-6395, 016-705-6395

• 委員, 金長洙
광주시 동구 지산2동 342-52
062-232-5577, 016-622-5577

• 委員, 李炳玹
장성군 장성읍 청운1동
061-392-1407, 011-9440-1401

• 委員, 朴來鎬
장성군 장성읍 충무2동 970-11
061-393-8880, 019-832-4562

• 委員, 金東河
광주시 북구 각하동 금호타운 1동 706호
062-261-4334, 011-9609-4334

入會를 환영합니다

〈姓名, 本貫, 雅號〉

金相垠	蔚山	靑菴	광산, 운남	高永莢	長興	后石	부안, 주산
孫寧達	廣州		경주, 황남	任亭模	長興		보성, 겸백
金老洙	蔚山	慕巖	용산, 청파	曺仁鎭	昌寧	蘇澤	담양, 고서
朴淙柱	珍原	晩堂	순천, 장천	奉祥九	河陰	雲史	장성, 삼월
高祐錫	長興	松原	담양, 창평	朴泰銃	珍原		장성, 진원
金在植	光山	錦齋	광주, 북구	朴英洙	寧陽		장성, 황룡
金正國	廣州	白啞	경주, 황남	金滿奎	蔚山	滿齊	광주, 북구
崔炳植	隋城	興山	광주, 북구	金相元	蔚山		성남, 분당

이상 2006. 6 . 30 까지

特別會費 誠金內譯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지면을 통하여 감사 드립니다.

光州市	西區	金相德	200,000
서울	삼양사	金在億	2,000,000
慶州市		孫寧達	100,000
蔚山金氏	大宗會長	金達洙	100,000
副會長		張源碩	500,000
光山區		李泳鎬	100,000

알 림

1. 본회 제17차 학술강연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다수 참석바랍니다.

○ 일　　시 : 2006년 7월 5일(수요일) 10 : 00
○ 장　　소 : 광주향교 유림회관 강당(광주시 남구 구동 22-3)
○ 주　　제 : 조선전기의 사림정치와 하서 김인후
○ 발 표 자 : 백승종(서강대학교 교수)

2. 원고 모집안내

○ ① 河西선생과 교유한 人物 ② 河西선생에 관한 새 자료 ③ 山仰會에 대한 제언 및 건의
○ 보내실곳 : 전남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377번지 필암서원 산앙회
　- 200자 원고지 14~28매 내외의 분량으로 하되, 보내신 분의 주소 성명과 전화번호를 꼭 적어 보내시기 바랍니다.
○ 보내주신 원고는 편집위원회 논의를 거쳐 회보에 게재하겠습니다.

3. 회원 여러분의 소식을 통보하여 주십시오.

○ 회원 여러분의 애경사, 선행, 미담 등 특별한 동정을 실어 '산앙회 사랑방'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제보와 추찬을 바랍니다.
○ 주소 · 전화번호 변경 사항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회비 입금 계좌 안내

○ 사정상 회의에 나오시지 못한 회원께서는 회비를 다음 계좌로 불입하실 수 있습니다.
　- 장성축산농협 175809-52-099266 (예금주 : 필암서원 산앙회 김용숙)

5. 입회 절차 안내

○ 신규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총회 또는 강화에 직접 나오시거나 전화로 가입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위의 농협계좌(축협 175809-52-099266)로 입회비 3만원을 입금하시고 전화(019-618-2084 김상원)로 다음 사항을 알려 주십시오. 입회원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姓名:	本貫:	雅號 :	生年月日:
住所:	전화번호 : 자택 : 휴대폰 :	現職 :	學歷 및 經歷 :

○ 청년, 여성, 유림의 입회를 적극 환영합니다.

필암서원 산앙회 회장

… 筆巖書院 山仰會 活動事項 …

근래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여 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발전시켜 선양하여야 할 필요성을 공감하여 산앙계 재발기 준비위원회(위원장 安晋吾)를 구성하여 高亨坤 필암서원원장을 비롯한 서원집강, 崔昌圭 당시 성균관장을 비롯한 전국의 유림 230여명이 2001. 8. 22일 필암서원에서 모임을 갖고 山仰會로 개칭하여 재발기 하였는 바 그후 활동사항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2001. 8. 22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하서선생의 생애와 사상" 주제아래 安晋吾 회장(전남대 명예교수)의 강회.
- 2001. 10. 15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추향후 "우암선생이 본 하서선생" 주제 아래 趙鍾業 충남대 명예교수의 강회.
- 2001. 12. 22일 광주 향교 유림회관에서 "하서선생의 도학과 절의" 주제 아래 金基鉉 전북대 윤리학과 교수의 강회.
- 2002. 3. 10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춘향후 "인종승하와 하서의 절의" 주제 아래 金鎭雄씨(서울대 공대졸, 부산거주, 문정공파 부도유사)의 강회.
- 2002. 8. 22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하서선생 신도비명-우암 송시열찬"을 朴來鎬씨(서원 집강)가 번역 봉독.
- 2002. 9. 26일 秋享후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하서선생의 천명사상" 의 주제 아래 尹絲淳 고려대명예교수의 강회.
- 2002. 12.10일 회원 소식지인 山仰嶪報(통권 제1호)1000부를 발행 配布.
- 2002. 12.23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하서 선생의 선비정신" 주제 아래 전주대 吳鍾逸교수의 강회.
- 2003. 3. 15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춘향후 "하서 문학의 도학적 이해"의 주제 아래 朴焌圭 전남대 명예교수(담양 가사문학관장)의 강회.
- 2003. 5. 28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한시 백일장 참가자를 대상으로 安晋吾 산앙회장(전남대 명예교수, 다산학 연구원장)의 특강을 하는 등 하서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탐구 전파하는데 기여하였음.
- 2003. 6. 20일 회원 소식지인 山仰嶪報(통권제2호)1,500부를 발행 配布.
- 2003. 7. 13일 광주 향교 유림회관에서 "현대한국유교의 과제" 주제 아래 서울대 종교학과 금장태 교수의 강회를 여는 등 하서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탐구 전파하는데 기여하였음.
- 2003. 9. 23일 추향제를 올리고 "하서 선생의 경연 활동과 군무 교육" 이라는 주제로 전남대 안동교 교수가 강연하였음.
- 2003. 12. 10일 山仰嶪報 제3호 1500부를 발행 배포.
- 2003. 12. 17일 산앙회 정기 총회. 安晋吾 회장과 金長洙 총무가 사임하고 새회장에 朴鍾達, 새총무에 孔鍊雄 선임. "河西詩의 道學的 성격"이라는 주제로 연세대 국악연구원 金永峯 교수가 강연함.
- 2004. 3. 9일 춘향제를 올리고, 서울大 박병호 교수가 河西 선생이 경연과 세자시강원에서 강한 내용을 조선왕조실록에서 뽑아 강연하였음.
- 2004. 9. 25일 추향제를 올리고, 최근덕 성균관장이 "河西의 학문적 연원과 성리학적 위치"라는 주제로 강연함.
- 2004. 12. 10일 산앙회 정기총회 및 학술 강연. "河西의 經濟思想"이라는 주제를 고려대 경제학과 이헌창 교수가 강연함. 山仰嶪報 4호 1500부 발행.
- 2005. 3. 28일 춘향제를 올리고, "한국 유림이 나아가야 할 길" 이라는 주제로 고려대 전 총장 洪一植박사가 강연함.
- 2005. 6. 30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하계학술강연. 연세대 송주호 교수가 "河西詩의 몇 가지 국면"이라는 주제로 강연.
- 2005. 9. 20일 추향제 올리고, '河西선생의 생애와 사상' 이라는 주제로 이준범 고려대 전 총장이 청절당에서 강연함.
- 2005. 12. 8일 산앙회 정기총회 및 학술강연, 박종달 회장이 연임되고, '河西 선생의 中和思想' 이란 주제로 전주대학교 吳鍾逸 교수가 강연함.
- 2006. 3. 20일 춘향제를 올리고, 노강 박래호 총무가 河西선생의 『復性賦』를 낭독하고 강론하였다.
- 2006. 7. 5일 광주 향교 유림회관에서 하계 학술강연. 서강대 백승종 교수가 '조선전기의 사림정치와 하서 김인후' 라는 주제로 강연함.